

‘강의매매 방지’ 수강신청 개편됐지만…“근본 해결 없었다”

박소영 기자 notold@knu.ac.kr

“우리가 사는 세계 강의 삽니다”, “소프트웨어적 사유 강의 있습니다. 쪽지주세요” 지난달 수강신청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강의매매’ 게시물들이 이어졌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해온 이 같은 강의매매 현상을 두고 학사지원팀이 ‘취소신청지연제도’ 등 주요 대책들을 연이어 도입했지만,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의매매란 수강신청 기간이나 수강정정 기간 중, 학생 서로가 대가를 받고 강의를 사고파는 행태를 말한다. 게시판에서는 판매자·구매자가 서로 가격과 시간을 특정 한다. 판매자가 해당 강의의 수강을 취소하는 즉시 대기하던 강의 구매자가 바로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온 이러한 형태의 강의매매는 최근까지도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강의매매는 강의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주로 졸업 필수 과목이나 학점을 잘 주기로 소문난 과목, 사이버 강의가 그 대상이다. 경영학을 복수전공 하는 A씨는 “전공신청이 정말 쉽지 않다”며 “나쁜지 알면서도 원하는 강의가 판매된다면 구매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때 배분이수과목인 ‘인터넷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기술’ 강의는 35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며 학생들의 회의 섞인 목소리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인기가 많은 강의를 일부러 신청해 높은 가격으로 강의를 되파는 악용 사례 역시 이어졌다. 2018학년도 등록 후 휴학한 B씨는 “워낙 비싼 금액에 강의가 거래되다 보니 휴학하는 김에 인기강의를 수강 신청해 판매해 볼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강의매매 성행의 일차 원인은 제한된 강의 수와 수강 인원 속에서 수강 취소를 하면 곧바로 다른 이가 신청 할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 때문으로 지적돼왔다. 여기에 매매를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드러나며 거래의 무분별한 증가가 있었다.

문제가 점차 확대되자, 타 대학들은 강의 매매 금지 조항을 학칙에 넣거나 수강 마일리지제도(연세대), 랜덤 취소 제도(영남대) 등 수강신청제도를 조금씩 개편해왔다. 우리학교 학사지원과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대기 순번제’를 시행해 이를 해결하고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KOR		ENG		공지사항		총합시간표조회		수강신청/강의과목	
• 개설년도	2017	• 개설학기	1학기	• 대학	일부(사용)	• 개설학과	설정대학 강의과목 검색	• 강화별	
• 오월	All	• 수업사간	All	• 교수명		• 연어구분	-----All-----	• 학수번호-부분	
• 개설강좌 목록									
NO.	학수번호-분반	강화별	대상학년	점수	교수명	학급	강의시간/강의실	비수구분	연어구분
1	ECON2011-01	거시경제학1	2	50	정윤승	3.0	월 10:30~11:45 (20405) 수 10:30~11:45 (20405)	04	
2	ECON2011-02	거시경제학1	2	140	이우현	3.0	월 10:30~11:45 (20111) 수 10:30~11:45 (20111)	04	
3	ECON2011-03	거시경제학1	2	60	이우현	3.0	월 10:30~11:45 (20304) 수 10:30~11:45 (20304)	04	
4	ECON2011-04	거시경제학2	2	60	김동복	3.0	목 12:00~14:45 (20301)	04	
5	ECON2011-01	미시경제학1	2	40	박동국	3.0	화 09:00~10:15 (20305) 목 09:00~10:15 (20305)	04	
6	ECON2011-02	미시경제학1	2	50	박현	3.0	화 10:30~11:45 (20302) 목 10:30~11:45 (20302)	04	
7	ECON2011-03	미시경제학1	2	50	정우영	3.0	화 10:30~11:45 (20406) 목 10:30~11:45 (20406)	영어	
8	ECON2002-02	미시경제학2	2	50	Carsten Krabbe Nielsen	3.0	금 13:20~14:15 (20302)	04	영어
9	ECON2002-03	미시경제학2	2	40	김봉규	3.0	월 12:00~13:15 (20300) 수 12:00~13:15 (20300)	04	
10	ECON4001-01	물류논문(경제학)	4	200	박우상	.0	~(1)	05	
11	ECON2009-01	거점마케팅	2	30	김정우	3.0	월 09:30~10:45 (20300) 수 09:30~10:45 (20300)	05	
12	ECON2011-01	계급경제학	2	45	민경식	3.0	목 15:00~17:45 (20310)	05	

자 했다. 수강 신청 인원이 가득 찬 강의에 대기자로 등록해두면, 잔여석 발생 시 자동으로 강의가 신청되는 제도다. 시행 이후 강의매매는 이전보다 확연히 감소했다는 평이지만, 대기자가 없는 강의는 여전히 매매의 대상이 됐다.

대기 순번제가 학내 구성원에게 완전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자, 지난해 제50대 총학생회(총학)는 후보 시절부터 학사제도 개편의 주요 공약으로 강의매매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전 회장은 당선 이후 지난해 5월 열린 소통위원회에서 강의매매 근절을 위한 수강신청 전산시스템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취소신청지연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이 됐다. 학생 설문 조사와 양 캠퍼스 종학의 합의를 거친 새 제도는, 수강신청 목록에서 강의 평이제를 하면 해당 강의의 잔여 인원이 표시되며 일정 시간 후 수강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취소로 인한 잔여석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어 강의 판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학사지원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개선의 방향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 학사지원팀은 취소신청지연제도를 두고 ‘공정한 수강신청’을 위한 절차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발생한 잔여석에 대해 강의매매를 시도하는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리기 때문에 강의매매의 성공 가능성이 작아져 시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당시 국제캠 학사지원팀 한상 과장은 “기존 수강신청 방식에서 변화하는 부분도 크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이 적을 것이다”라며 “지연 시간을 1시간으로 명시해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신청지연제도가 자리 잡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 결과, 학생들은 강의매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수강신청제도 개편 자체에 회의감을 표하는 시각은 여전했다.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강의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선 애초에

‘강의’를 늘렸어야 했다는 반응이다.

정지희(스포츠지도학 2017) 씨는 “수강신청제도를 바꿔도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긴 여전히 어렵다”며 “강의 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주은(골프산업학과 2016) 씨도 “강의 수가 빠져나온 부족해 현재 수강신청제도는 손가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연히 원하는 수업을 잡기 힘들다”며 “모두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근본 해결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3일 전 학년 수강신청이 끝난 후 에브리타임에서도 ‘취소 수업을 ‘줍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사이트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수강신청지연제도가 강의매매를 방지하는 것보다 비효율성이 크다”는 반응부터 “전공필수 과목 중 2학년 학생 수만 해도 160명이 넘는데, 두 학기 합쳐 120명만 열리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내용까지 불만이 속출했다.

앞서 우리학교에는 강의 수를 늘려 모두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 지난 2017년 2월,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선착순 수강신청제도를 개편하고 강의 수를 늘리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였다. 학생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이에 맞게 강의를 공급하는, 일종의 ‘사전 조사’를 거치는 방식인 셈이다. 알맞은 강의 수를 처음부터 열게 돼 대부분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2017년 활동을 마치며 교무처에 수강신청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논의는 미지근한 분위기다. 2019학년도 1학기 후마 재도약을 통해 개설될 ‘수강신청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에 대해 다시 토의할 예정이었지만, 후마 과목 개편 업무와 함께 교무처·총학에 중복되는 수강신청 관련 위원회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우선순위’ 면에서 소외당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이다.

개선안을 발표했던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조영숙(의학) 위원은 “결국 선착순 방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더라도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제도를 재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및 필진 모집 공고문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및 전문필진 모집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대중화, 과학기술인재양성, 창의인재·영재 육성, 교육 기부, 수학과 학교에서 개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최신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학술신문 ‘사이언스타임즈’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객원기자 및 전문 필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모집 인원
		분야별	공통	
객원기자	과학행사 현장 취재 및 과학이슈 관련 기사 작성	기사 및 글 작성 경험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대졸(4년제) 이상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전문필진	전문 분야별 칼럼 기고 (기초과학/ 의학/ IT/ 항공·우주·환경·에너지 등)	분야별 경력 5년 이상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 경력자 및 글 기고 경력자 • 대학언론사 활동 경력자 • 외국어 능통자 • 주제 이상 원고 제출 가능자 • 과학행사 취재 가능자 (유동적 스케줄)

■ 활동조건

- 활동기간: 학제 발표일로부터 1년
- ※ 참여도 및 활동 성과에 따라 지속 활동 여부 협의 가능
- 원고료는 재단 “원고료 및 취재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별 장당 원고료 산정 및 월별 지급

■ 전형절차

- 서류→면접→최종합격
- ※ 전문 필진은 서류심사

■ 접수방법

- 마감일: 2019년 3월 15일 23:59까지
- ※ 수시모집이나 3월 15일까지 접수자 대상 우선 합격 발표 예정
- 접수방법: 이메일 지원 (scientetimes@kofac.re.kr)

■ 제출서류

- 지원서(자사 양식)
- ※ 자필 서명한 스캔본 이메일 제출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3. 19.(화)
- 면접전형: 2019. 3. 21.(목)
- 최종발표: 2019. 3. 22.(금)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합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및 구비서류 미제출의 책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대상자는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책임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한국의 전통 건축과 기와

참여자 모집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는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인문학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사업 명: 한국 전통 건축과 기와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 11월(일시는 산정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3. 사업 대상: 박물관 및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단체
4. 교육 장소: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교육 구성

1. 한국의 지붕
 - 단행 허우기 체험
 - 단행 갑방기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단행을 꾸며볼 수 있다.
2. 한국의 와강 만들기
 - 전시를 관람한 후 기와의 형태와 쓰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고구려·백제·신라·여당의 특징을 가진 와강 모양의 석고 복제체험을 만들 수 있다.

■ 신청 방법

1.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전화 접수 모두 가능
이메일 접수: khsl3050@knu.ac.kr / 전화 접수: 02-961-0141
2. 신청기간: 기간 중 상시 모집 (제행일 1주일 전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기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박물관협회,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